주간 증시 브리핑

2026.2.23(월)

유진투자증권
리서치센터

Executive Summary

- **[증시요약]** 1월에 +24% 상승한 코스피는 2월에도 +11.2% 급등을 이어 가며, 6천 포인트에 접근 중(5,809pt, 주간 +302p, +5.5%). 코스닥도 2주째 상승함(1,149pt, 주간 +4.3%). 반도체 업종과 함께 3차 상법 개정 기대가 높아짐. 한편 원달러는 美의 이란 공습 우려 속에 1,440~50원대에 머물렀음.

- **[해외증시]** 美 증시는 이란과의 전쟁 우려와 美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(국제비상경제권한법)에도, AI 공포가 진정되면서 상승함 (S&P500 +1.1%, 나스닥 +1.5%). 日 증시는 엔화 강세 부담으로 하락함 (닛케이 -0.2%). 한편 中 증시는 춘절로 휴장(본토 2/16~23일, 24일 개장, 홍콩 2/20일 개장 -0.6%).

- **[시장전망]** 코스피가 올해 두 달 만에 +35% 상승함. 반도체 업종에 대한 가파른 실적 상향과 함께, 주식형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음. 지난해 주식형 펀드로 83조원 유입되었고, 올해 연초 이후 2/11일까지 +46.7조원이 추가로 유입됨. 유동성의 힘이 거센 만큼 추가 상승시도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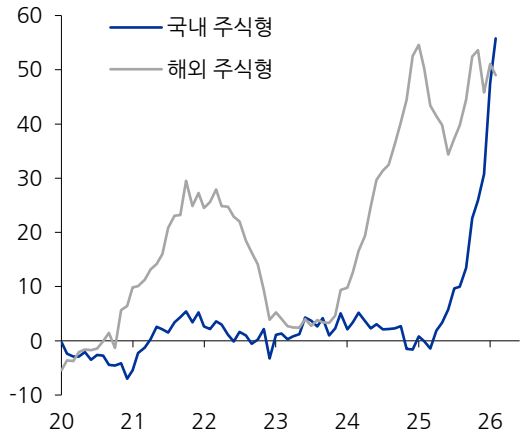
- **[주요일정]**
  - ① 美 1월 생산자물가지수(2/27일)
  - ② 美 2월 CB 소비자기대지수(2/25일)
  - ③ 韓 한은 금융통화위원회(2/26일)
  - ④ 韓 2월 1-20일 수출(2/23일)
  - ⑤ 日 2월 소비자물가지수(2/27일)
  - ⑥ 中 日 휴장(춘절, 일왕 탄신일, 2/23일)
  - ⑦ 美 엔비디아, 홈디포 등 실적 발표

구분		2/20	1W	1M
KOSPI	↑	5,809	5.5%	18.9%
S&P500	↑	6,910	1.1%	1.7%
DOW	↑	49,626	0.3%	2.3%
닛케이225	↓	56,826	-0.2%	7.2%
상해종합	-	4,082	0.0%	-0.8%
원/달러(원)	↑	1,447	0.1%	-2.1%
엔/달러(엔)	↑	155	1.3%	-1.4%
국고채3년(%)	↑	3.143	3.142	3.19
국고채10년(%)	↓	3.540	3.571	3.65
미국채10년(%)	↑	4.09	4.05	4.30
WTI(달러/배럴)	↑	66.4	5.6%	10.0%
한5-yrCDS(bp)	↓	22.6	-0.1	1.4

CHART of the week

국내 및 해외 주식형 자금 유입 속도

(%, YoY, 설정금액)



1 美 1월 FOMC 회의록 공개(2/18일)

연준 추가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해질 전망

- 美 1월 FOMC 회의록에서 여러 위원들은 최근 몇 달간 고용 하방 위험은 완화된 반면 인플레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언급.
- 향후 물가가 지속해서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경우 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. 이는 추가 금리인하시점을지연시키는요인으로해석됨.
- 다행히 1월 美 CPI가 +2.4%yoy 상승하며, 예상을 하회함. 일부 공산품 물가가 올랐지만, 임대료를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 압력이 완화됨. 물가 상방 위험은 높지 않음.
- 고용 하방 위험이 완화된 현 시점에서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보다 신중해질 전망.

2 美 대법원, 트럼프 관세 일부 위헌 판결(2/20일)

트럼프 외교력에 일격, 그러나 다른 조치 예상

- 美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IEEPA(국제비상경제권한법)에의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판결함(2/20일).
- 모든 관세 부과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님. 자동차/철강/알루미늄/구리 등 일부 품목별 관세는 해당 사항이 없음. 환급 조치도 시간이 소요될 전망.
- 美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301조(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)를 근거로 모든 국가들에게 최장 150일 동안 15% 관세를 부과함.
-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통한 위협 우려는 한풀 꺾일 전망. 그러나 관세 체제 조정에 따른 불확실성과 非 Tech 산업의 투자 지연 우려 가능성이 존재함.

3 국내 유동성,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

올해 1~2월 주식형 펀드 +46.7조원 유입

- 올해 2/11일까지 은행 총 예금은 -34.1조원 감소함. 이 가운데 저축성 예금이 -25.3조원 줄었음.
- 반면 주식형 펀드 자금 유입이 가파름. 2025년 한해 동안 주식형으로 83조원이 유입되었는데, 올해 1~2/11일까지 46.7원이 유입됨.
- 25/10월 이후로는 주식형 가운데 국내 주식형으로의 자금 유입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음. 반면 이달 들어 해외 주식형 자금은 25/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함.
- 5월 부동산 중과세 혜택 중지 등 부동산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주식 등 모험 자본으로의 이동은 좀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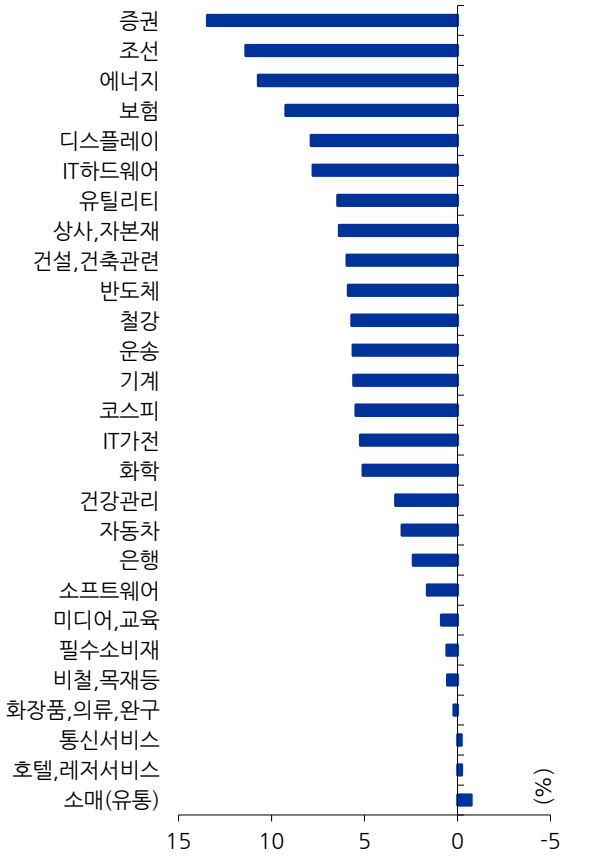
4 韓 채권시장 동향(2/19~20일)

대외 지표 & 지정학적 리스크 연동된 흐름

- 국고채 3년물 금리 3.143%(+0.1bp), 10년물 금리 3.54%(-3.1bp) 마감.
- 목요일 금리 상승 출발했으나 금요일 장기물 중심 하락 전환.
- 연휴 중 대외 금리 상승 반영과 국내 위험자산 선호, 호주 실업률 예상치 하회로 인한 RBA 인상 가능성 등으로 금리 상승 출발.
-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과 그에 따른 주요 아시아 국가 금리 하락,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등으로 금리 하락 마감.

주요 이슈 / 경제 지표 전망 / 주요 일정

주간 업종별 수익률(2/20 기준)



주요 경제지표 예상(2/23 ~ 2/27)

韓 2월 금통위(2/26일) → 금리 동결, 성장률 상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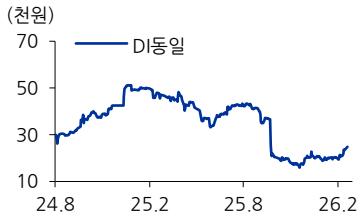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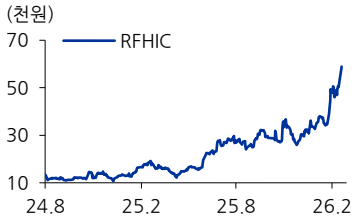
- 한은은 환율 불안정과 부동산 시장,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성장 등의 요인으로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.50%로 동결함
- 이후 원/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
- 크게 변하지 않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2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.50%로 동결 결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
-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부문 수출 호조로 26년 성장률 전망을 +0.1~+0.2%p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. 다만 물가는 기존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
-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임기가 4월 종료됨에 따라 차기 총재의 정책 스탠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美 1월 생산자물가(2/27일) → 서비스 부문 둔화는 제한적

- 美12월 생산자물가는 전월비 +0.5%로 최근 5개월 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함(전년 동월비 +3.0%)
- 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은 서비스(+0.7%)임. 특히 무역마진(+1.7%)이 큰 폭 상승하며 서비스 물가 상승에 크게 기여. 기업들이 관세 등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함
- 반면 에너지(-1.4%), 식품(-0.3%) 가격은 하락하며 상승 압력을 일부 상쇄함
- 1월 CPI는 +2.4%yoy 상승하며 소폭 둔화되었으나 마진 및 운송·서비스 부문의 비용 전가가 이어지고 있음
- 1월 생산자물가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상품 부문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서비스 부문의 둔화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

	주요경제지표발표	매크로 / 시장 이벤트
2/23 (월)	▪ 韓 2월 1-20일 수출 (P: +14.9%yoy)	▪ 中, 日 휴장(춘절, 일왕 탄생일) ▪ [실적발표] 韓 한화손해보험, 한화생명, 현대해상, 미래에셋생명
2/24 (화)	▪ 韓 1월 생산자물가지수 (P: +1.9%yoy) ▪ 韓 2월 소비자심리지수 (P: 110.8pt)	▪ [실적발표] 美 홈디포, 리얼티인컴
2/25 (수)	▪ 美 2월 CB 소비자기대지수 (C: 87.5pt, P: 84.5pt)	▪ [실적발표] 韓 한국콜마 **美 엔비디아**, 세일즈포스, 시놉시스, 스노우플레이크, 아이온큐
2/26 (목)	▪ 유 2월 경기기대지수 (P: 99.4pt)	▪ 韓 금융통화위원회 ▪ [실적발표] 美 인튜이트, 델, 코어위브, 오토데스크, 로켓랩
2/27 (금)	▪ **美 1월 생산자물가지수** (P: +3.0%yoy) ▪ 美 1월 근원 생산자물가지수 (P: +3.3%yoy) ▪ 日 2월 소비자물가지수 (C: +1.3%yoy, P: +1.5%yoy)	▪ [실적발표] 韓 코오롱인더

추천 종목

섹터/산업	종목/코드	편입가 (원) 편입 날짜	수익률	최근 1년간 차트	주요 실적 예상 & Valuation	투자 포인트
그린산업/ESG	DI동일 (001530)	- (2월 23일)	신규편입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651.7 / 608.9 / 688.8 영업이익 7.8 / (1.0) / 12.3 순이익 2.5 / (9.7) / 11.7 PER (배) 766.3 / - / 44.3	▪ BESS향 LFP용 코팅 알루미늄박 및 환경플랜트 자회사 매출 증가 예상 ▪ 차세대 배터리인 소디움 배터리는 구리박 대신 알루미늄박 채택할 것에 따른 수혜 기대 ▪ LFP, 소디움, 전고체 배터리용 알루미늄박에 필수적인 카본 코팅을 내재화하기 위해 1,100억원 투자
통신장비	RFHIC (218410)	- (2월 23일)	신규편입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114.9 / 174.9 / 243.1 영업이익 1.5 / 28.5 / 44.2 순이익 19.7 / 28.7 / 41.3 PER (배) 13.5 / 67.4 / 45.9	▪ 과거 통신장비 중심에서 사업 구조 다변화에 성공하며 방산 매출 성장 본격화와 함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구간 진입 ▪ 대형 통신 고객사 확보 가시성 확대로 유의미한 외형 성장과 높은 업사이드 확보 기대 ▪ 위성 SSPA 전환 추세에 맞춰 우주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방산 성장 공식의 재현 전망
IT장비	선익시스템 (171090)	- (2월 23일)	신규편입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112.9 / 459.7 / 511.8 영업이익 7.9 / 85.2 / 102.2 순이익 (28.1) / 90.2 / 96.1 PER (배) - / 14.2 / 14.4	▪ 8세대 OLED 증착기 프리미엄 지속 - 기존 고객(BOE)향 수주 및 타 FMM 증착방식 패널사 향 수주 기대 ▪ OELDoS 증착기 수주레벨 연 1~2대에서 연 6~7대로 상승 - 메타레이반2 쇼티지로 AR 글라스 패널사 수요 흡수 위해 OLEDoS 방식 채택 후 판가 인하 전략 예상 ▪ 페로브스카이트 모멘텀 지속 - 수주받은 118억원 실증장비 연내 실증 완료 후 내년 양산규모 수주 기대
건설/부동산	삼성E&A (028040)	30,800 (2월 2일)	+15.6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9,966.6 / 8,893.3 / 10,338.2 영업이익 971.6 / 722.2 / 856.9 순이익 638.7 / 617.6 / 701.5 PER (배) 4.3 / 11.5 / 10.0	▪ 사업부 재편(화공/비화공 > 화공/첨단산업/New Energy) ▪ New Energy 수주 파이프라인 집중(전체의 66%) ▪ 유가에 민감한 화공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수주 및 매출 확대 기대 ▪ 진행사업장 정산 이익 지속되어 가이던스 초과 달성 예상
반도체 장비	한미반도체 (042700)	177,500 (1월 19일)	+13.0%		(단위: 십억원, 배) 24년 / 25년 / 26년 매출액 558.9 / 647.0 / 813.5 영업이익 255.4 / 297.3 / 404.3 순이익 152.6 / 283.6 / 396.5 PER (배) 52.5 / 67.8 / 48.2	▪ 기존 TC 본더 고객사들의 투자 확대와 국내 주요 칩 제조사향 신규 수주 기대 ▪ 주요 고객사들이 HBM4E까지 TC 본딩을 적용함에 따른 TC 본더 장비 강세 지속 예상 ▪ 빅 다이 본더, MSVP, EMI 실드 장비 등의 ASP 상승으로 인해 TC 본더 이외 매출까지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